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3월 3일 (제124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영적 치매를 조심하자

병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치매다. 이 병은 방금 했던 말과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의 기억을 모조리 잃어버리게 만든다.

영적 치매도 무섭긴 마찬가지다. 영적 치매에 걸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신 게 하나도 없다'고 투덜거린다. 마치 치매 환자가 밥을 먹고 돌아서서 밥 안 준다고 난리를 치는 것처럼. 치매 초기 증상으로는 예전과 다르게 성격이 난폭해진다는 것이다. 안 하던 욕을 하고, 고집도 세진다. 영적 치매에 걸리면 교회 안에서 사소한 일에도 목청을 높이고, 투덜거리고, 자기주장만 내세운다. 심지어 주의 종을 대적하기도 한다. 이때 자신이 이상함을 눈치채야 큰일을 막을 수 있다. 치매가 심해지면 가족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영적 치매도 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그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도 잊고, 세상으로 나간다. 치매 환자들이 틈이 나면 집을 나가 헤매듯. 문제는 치매 환자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영적 치매에 걸린 자들도 자신이 치매에 걸린 줄 모른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는 주의 종의 말에 '내가 어때서~' 한다. 그래서 이 병이 무서운 거다.

건강할 때 치매를 대비해야 한다. 손글씨 쓰기, 소리 내어 책 읽기, 걷기와 많이 웃기 등이 치매 예방법이라고 의사들이 말한다. 영적 치매 방지를 위해서는 성경을 소리 내어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늘 기쁨으로 찬송하고, 모이기에 힘써 교우들과 자주 교제하여야 한다. 또한 소리 내어 기도하고, 방언으로 무시로 기도하여 안식을 얻어야 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6~18)는 말씀은 육적 치매와 영적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미사일이 좋아도 발사대가 고장나면 못 쓴다. 사는 동안 건강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 늘 자신을 관리하자. 관리란 점검이다. 내 영·혼·육을 잘 점검하여 아프지 말고 주님이 주신 수한(壽限)을 다하자.

2024 예수중심교단 목회자 세미나

"나는 네가 필요하다."
2023년 6월 25일 새벽에 성령께서 총회장 목사님께 하신 말씀이다. 목사님은 이 음성을 듣고 '내가 무엇이길래 필요하시다 하십니까? 나 같이 무익한 것을, 나 같이 천한 것을, 이제 나이도 나이인 나를 무엇 때문에 필요로 하십니까?' 하며 하염없이 우셨다고 한다. 그리고 결심하셨다. 주를 위해 이 한 목숨을 던지기로!

'내가 불붙지 않으면 남을 불붙일 수 없다'고 늘 말씀하신 목사님은, 이 불을 전국 지교회 주의 종들에게 붙이기 위해 2월 26일 오전 10시까지 장성 예루살렘기

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다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요? 더욱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 목사가들이 신뢰를 주지 못해서입니다. 물건을 안 사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물건을 나쁘게 만든 회사가 잘못이듯, 교회와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주지 못한 교회와 목사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자세로 목회하고 있나?' 돌아보세요. 나는 신뢰를 주었나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에게 가증하게 대한 것은 없는지, 단에서와 단 아래

번창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할 만한 종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빌 2:16), 그날에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녁 예배시간에 목사님은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어라'고 말씀하셨다. 목사님은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단적으로 못박으셨다.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어보세요. 임계점을 넘는다는 것은 한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요, 홍해 앞에 사면초가 된 모세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



2024 교단 목회자 세미나(2월 26일~28일, 장성 예루살렘기)

도원으로 소집 명령을 내리셨다. 교단의 목사, 전도사, 사모, 신학생이 모인 2024년 예수중심교단 목회자 세미나는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원하시며, 회개를 촉구하는 목사님의 통곡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눈물은 강철도 녹일진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지 못할까.

목사님은 세미나 첫 시간에 '목회 성장과 사업 성장은 같다'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다.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여러분, 대기업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파는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파는 것입니다. 목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목회자의 언행심사로 신뢰를 파는 것이 목회

에서의 언행은 일치했는지, 거짓의 탈을 쓰지는 않은지, 주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기업이 몰락하듯, 교회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를 얻는 법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2:5). 맞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이란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복종이요, 성도들에게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 즉 배려와 사랑, 용서, 관용, 진실입니다(빌2:4). 그렇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게 되어 교회가

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눅18:27)."

목사님은 기도했기에 오늘이 있음을 여러 간증으로 입증하셨다. 그리고 모든 조명을 끄고 한 시간이 넘도록 통성기도를 시키셨다.

전지훈련은 모두를 스타로 만들기 위한 감독의 사랑이다. 사력을 다해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신 총회장 목사님은 우리 목회자 모두가 하나님 종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끝으로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성도님과 삼시세끼 맛난 음식을 제공해주신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묘수 전도사



은혜카페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목사님



풍성한 점심식사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41:17~43)



준비하라, 점검하라는 말은 강조할수록 좋다

70년 넘게 살다보니 행로법칙(行路法則)이란 게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강조할수록 좋은 단어는 ‘준비하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점검하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준비하지 않아서 낭패 본 일, 또 준비하고도 점검하지 않아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일 등 말입니다. 아찔했지요?

그렇습니다. 인생사 준비해야 성공하고, 준비해야 빨리 가고, 준비해야 여유 있고, 준비해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왕입니다. 바로가 두 번 연이어 같은 맥락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살찐 일곱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세약하고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누구도 해몽하지 못한 이 꿈을 요셉이 해몽하는데, 이는 곧 애굽 땅에 칠 년 동안 풍년이 들겠고, 그 후 칠 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든다는 꿈의 계시였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는 과감히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이에 대비하라고 명합니다. 바로의 명에 따라 약관의 나이로 총리에 오른 요셉은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풍년이 계속된 칠 년간의 소출을 각성에 비축하여 흉년에 대비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던지 바다의 모래 같다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창41:47~49). 준비할 수 있는 최대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결과 자국은 물론이요,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변 국가까지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애굽을 부국으로, 강국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준비하는 자다

준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넘치도록,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 대충 준비하면, 어설프게 준비하면 준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한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 모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중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철저히 준비하자’ 하여 기름을 아주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반면 다른 다섯 처녀는 준비를 하긴 했는데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적당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시간이 다 되도록 안 오는 겁니다. 넉넉히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이

야 여유를 가지고 기다렸지만, 적당히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초조했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옆의 처녀들에게 기름을 팔라고 부탁하다가 안 되니 그제야 부리나케 기름을 사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잔치 문도 닫혔지요. 성경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는 믿는 자요, 하나는 안 믿는 자이기



총회장 이초석 목사

에 그런 게 아닙니다. 둘 다 믿는 자입니다. 다 믿는 자인데, 하나는 철저하게 사후를 준비했고, 하나는 대충 사후를 준비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24:42~44). ‘너희도 (철저하게) 예비(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말 아시죠?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선조 때에 울곡 이이가 북쪽에서 계속 여진족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병사 십만을 양성하자고 합니다. 선조가 그 말을 듣고 일본으로 두 사람을 파견하고는 정탐하고 오라 합니다. 그러나 두 사신의 의견이 달라 조정은 당황했습니다. 황윤길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이 높으니 서둘러 전쟁에 대비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김성일은 침략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이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결국 조정에서는 급한 대로 몇 가지만 대충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조총을 비롯한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그것이 1592년의 임진왜란입니다. 그때 만일 십만보다 많은 이십만이 넘는 대군을 양성했다면 침략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를 거울삼아 대한민국도 군사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군사력이 세계 6위인데...’ 하며 자만하면 안 됩니다. 북한이 이에 넘보지 못하도록 철저히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이고, 후회

보다 아픈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교회 성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을 거냐?’고 다그쳐도 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도중에 낭패당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중도하차 하지 않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눅14:28~30).

무슨 일을 할 때 미리 계산해보고, 넉넉히 준비해야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거침없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동력도 그의 아비 다윗이 성전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역대상 22장에 보면 돈은 물론이요, 성전을 장식할 보석까지 준비했으며, 심지어는 작은 못까지도 다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석수와 목수, 일에 능한 자들도 다 확보해 놓았습니다.

‘빨리한다’라는 것은 발이 급한 조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했다는 의미입니다. 준비했기에 빨리 가고, 빨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준비한 자 몫이다
준비하는 자가 부지런한 자다

우리는 영·혼·육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영적인 것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기 전에 믿으면 된다고요. 천하에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언제 죽을지 자신이 아나요? ‘안녕히 주무세요’란 말이 무색한 세월인데요?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준비하여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도 준비해야지요. 제가 나이 드신 성도님들께 그러합니다. 절대 재산을 아들딸에 주지 말라고요. 다 주고 자식 눈치 보며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 푼 얻어 쓰기도 힘들어서 구차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지 말고 자신을 위해 모아놓으세요. 그래야 황혼이 아름답고 여유롭습니다. 젊은이들, 준비하세요. 공부하고, 여러 가지로 경험하고, 도전해보세요. 준비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는 도둑놈 말고는 없습니다.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잠6:6)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개미’라는 영화를 비행기 안에서 본 적이 있는데, 성경 말씀처럼 그것들은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주권자도 없지만,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여름에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미물인 개미도 추수 때 미리 양식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던 말입니다(잠6:8). 배짱이에 대한 해석이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고 해도, 개미가 준비할 동안 놀고먹다가 나중에 빌어먹는 배짱이 같은 신세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우주 삼라만상을 준비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준비하셨고, 또 장차 우리가 살 천국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갑작스런 재앙에 대비하기 위해, 매사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요, 무비무환(無備有患)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칼럼 ::

:: 찬양과 경배::

예수의 피로 산 교회

하나님의 감독과 사랑을 받으며 사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관심을 쏟지 말고, 나 좀 내버려 두라고 한다. 이 말은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불신자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하였다. 즉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천사들이 항상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눈을 대신해서 우리를 지키기 시작한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천사는 개의치 않고 그곳에 가서 우리를 다 관찰하고 있다. 거짓 말할 때도, 잠잘 때도 천사들은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천사들은 그 대화를 다 듣고 있으며, 또한 혼자 마음에 생각하고 있더라도 천사들은 그 생각을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초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늘날 교회 성도나 직분자들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지 이용하는지는 자신만이 아는 비밀일 것이다. 주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심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용할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상업적

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일이 비밀비재하고, 각종 이권을 노리고 교회를 이용하는 일들, 특히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본색을 드러낸다. 그래서 주님은 “입으로는 주를 부르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경고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능히 갚으신다. 의를 행한 자는 의의 상을 주시고,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형벌로 갚으신다. 요행은 없고 그 결과와 책임은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그분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며 나의 모습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회개란 나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요, 십일조란 나의 수입을 숨기지 않고 낱알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다.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온전하다’는 것은 ‘숨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감사란 하나님의 주신바 그 은총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아주 멀어질 것이요, 감사하는 사람은 더욱 더 감사하도록 축복을 베풀어주실 것이다. 이제라도 변화되어 구원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교회발전에 밑거름이 되겠다는 다짐과 실천이 요구된다.

신기류 목사

:: 세상을 보는 창 ::

신앙의 변화와 변질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코람데오)’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람데오의 삶이 가능할까?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고, 늘 변질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 이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주시는데, 이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 결국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신앙생활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되는 과정에서 때론 변질되기도 한다. 그래서 변화와 변질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변질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을까? 변질의 속도를 늦추려면 생각과 마음을 늘 살펴야 한다. 생각의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

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약해지면 어느새 세상 가치관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마음의 정원에 죄악의 잡초가 무성해지기 때문이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쓴 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분별력을 키워가야 한다. 육신은 변질된다 해도, 생명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마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활의 기쁨을 붙잡을 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 변화의 길은 어렵지 않다. 내가 죽으면 된다. 죽으면 새로워지고, 죽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부요함이나 소유보다 존재를 추구하는 삶이 죽는 길이다. 높이와 넓이보다 깊이를 추구하는 것이 죽는 길이다. 높은 가격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변화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분주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변화를 위해 시간을 투자할 때 변질되지 않게 된다. 씨앗이 땅속에서 썩는 것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내 인생을 변질되지 않고 청춘의 열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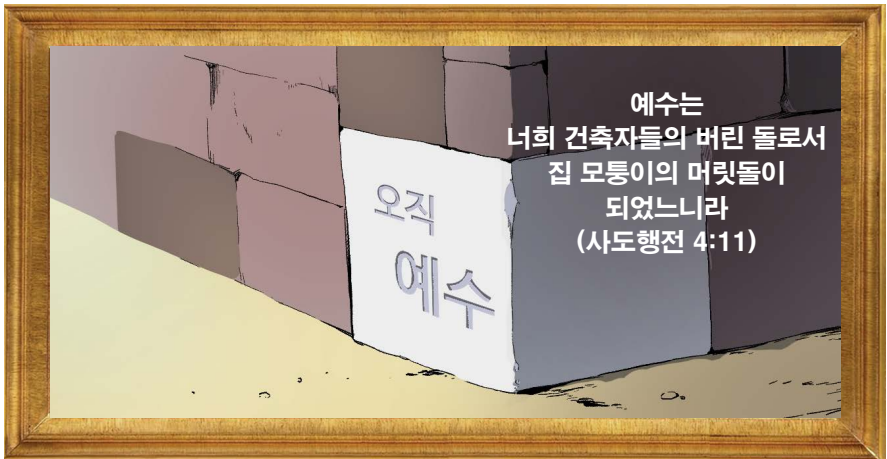
이정금 전도사

부자 청년의 재물

마태복음을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마19:16~22).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다 잘 지켰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이 부자 청년이 버려야 할 것이 재물이란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뒤에는 그것이 단순히 재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버려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주의 일을 내려놓고 따라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

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다니며 많은 일을 합니다. 때론 힘들기도 하지만 즐겁게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일이 ‘주를 위한 주의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주의 일’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주의 일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내려놔야 할 ‘부자 청년의 재물’ 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신앙,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을 내려놓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욱, 우리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윤예녹 생도



:: 생명의 말씀 ::

니고데모의 안경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무식한 사람은 없다!” 총회장 목사님의 단골 메시지다. 그렇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전부라 생각하는 인생만큼 근시안은 없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훨씬 크고 진짜이기 때문이다(히11:3). 그래서 이 창조세계와 역사의 배후를 읽고 해석하는 안경이 필요하다.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안경이다. 남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는 거듭남으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라는 영적 안목을 교육받는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적인 안경을 쓰게 된다. 그러면 삶의 태도와 해석이 달라진다. 필자는 신학교 신입생들에게 첫 수업 때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을 벗고, 니고데모의 안경을 써라!’고 강조한다. 자연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은총의 세계를 바라볼 때 신학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그것을 끌어올리는 보이지 않는 힘은 하나님이다(고전3:6). 이게 바로 은총의 세계이다. 우리는 은총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자연의 안경

덕에 과학이 발달한 건 사실이지만, 니고데모의 안경은 그 세계의 진짜를 보게 해주며 달리 해석하게 되고, 과학적 원리처럼 돌아가는 만물이 하나님의 인격의 산물로 느껴진다. 또한 인간의 역사에 세심하게 간섭하시는 인격자이심을 깨닫는다. 인간의 역사가 타락 일변도로 달려가듯 보이지만,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도 보게 해준다. 우리는 현실을 감각하며 살되, 니고데모의 안경을 써야 한다. 인간은 이 땅과 저 세상의 ‘사이’를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이다(빌1:23).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역사와 인생을 니고데모의 안경으로 보며 해석하기를 마다할 때가 많다. 어떤 사건의 배후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외면하고, 현상에만 몰두하며 하나님 없이 해석하려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마귀도 사람을 통해 일한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것이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엡6:12). 분별해야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씌워주신 니고데모의 안경을 벗지 말자!

송직화 목사

:: 주님을 향한 노래 ::

:: 귀를 기울이세요 ::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교구 차를 맡아서 관리하게 되면서 차를 주차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집에는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근처 골목에 주차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교회에서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고, 주차비를 지불하고 정기주차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교인이 아니었기에 지하 6층까지 내려가야 했고, 매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출입이 통제된다는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더는 주차할 자리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주차장을 사용하던 중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하 6층에 차를 주차하고 내리는데 누군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 교회의 부목사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분은 다짜고짜 오늘부로 주차장 사용을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이유는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냐면서, 예수중심교회가 구원과 교회 아니냐고, 거기 부교역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중심교회 전도사이고, 우리 교회는 구원파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더 이상 얘기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행정직원에게 넘기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지하 1층을 지나 내려올 때 교구 차 옆에 붙은 ‘예수중심교회’ 스티커를 보고 쫓아온 것입니다. 이단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았다는 간증을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겪어보니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 다시 주차 자리를 찾아 헤맬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때까지 들었던 간증들처럼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던 집 근처 공영주차장에 정기주차 빈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영주차장이니 주차비도 훨씬 저렴했거니와 더 이상 지하 6층까지 내려갈 필요도, 자정 전에 들

어가려고 마음이 조금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만약 동네 교회 주차장에서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주변 다른 주차장을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화가 복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축복은커녕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간증, 다윗의 간증, 목사님의 간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11).

이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날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길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호민 전도사
fioe154@naver.com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Good News

시편 기자는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인생의 시종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한 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입니다. 우매한 자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흘

러가는대로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기에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올 때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나가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호흡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건강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죽은 뒤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지 지나가고 나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바깥세상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죽은 뒤의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숙아로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라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 영적인 미숙아는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가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뒤에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부정적인 생각은 건강의 적!

확증편향이라?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증거는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주장에 반대되는 증거는 배척하고 무시하는 심리적인 경향을 말합니다. 부정적 확증편향이란 긍정적인 내용은 무시하고 부정적인 반응과 결과에 대해서만 받아들이고자 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요즘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스트레스가 없이 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적절한 휴식과 운동과 영양 섭취가 가능하다면 사실 건강을 잃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정 큰 사건 이후로 몸에 큰 질병이 오는 경우도 많고,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여기저기 원인 모르고

아픈 경우도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 중 부정적인 생각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습관이 병을 만들 듯이, 부정적인 확증편향은 감사를 모르게 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주어진 것은 당연하지만 부족한 것만 눈에 보입니다. 매사 진지하다 못해 과도하게 긴장하고 불안하고 부정적인 것을 찾아내는데 몰입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몸이 경직되고 호흡을 짧게 만듭니다. 짧은 호흡으로 인하여 저산소로 경직된 신체는 저체온 상태를 만들게 되어 손발이 차게 되고 혈류

순환에 장애가 생깁니다. 상체는 열이 뜨겁고 하체는 차가워지는 몸의 순환장애가 생깁니다. 그 결과 암, 우울증, 치매, 고혈압, 당뇨병 등이 이러한 저산소 저체온 상태와 관련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 때문에 내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규칙적으로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자연 음식을 통한 건강한 영양 섭취, 일상에서의 기쁨을 나누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연습은 하나님이 주신 몸과 마음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Dr. 설재현 집사
kseolmed@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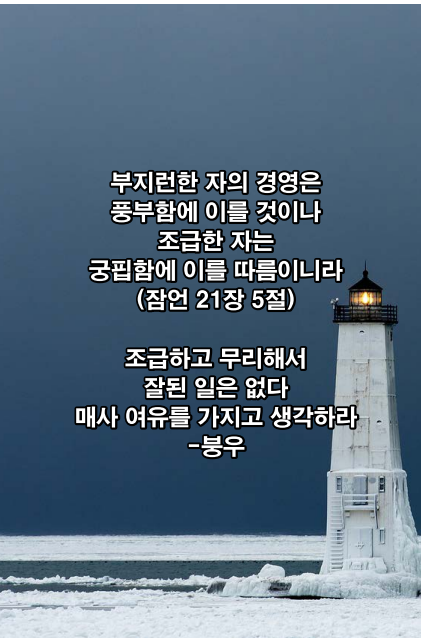
더 배우고 싶다!

작년 11월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한 할머니가 수험생이 되어 화제가 되었다. 1941년생, 82세 김정자 여사! 그녀는 매일 아침 5시 20분에 집에서 나와 2시간씩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간다. 굵은 등과 힘없는 다리로 도시락과 책가방을 메고 왕복 4시간의 고된 등하굣길을 매일 반복한다. 수업시간보다 2시간 일찍 교실에 1등으로 도착해 컴퓨터를 켜다. 이는 자신이 손이 느리니 남들보다 컴퓨터 연습을 더 많이 하기 위함이다. 하교 후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배운 과목의 복습을 하루 3시간씩 꼭 하고 잔다. 어린 시절, 한국전쟁이 나고 피난길에 올라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 후 결혼하고 삼남매를 키우면서 배움의 끈을 놓은 것이 한이 되었다. 이름 석 자도 못쓰는 어미, 딸의 출국길에 영어를 몰라 공항의 입구를 헤맨 어미가 미안했다. 그래서 늦은 나이 공부를 시작했고, 주부학교, 고등학교까지 마쳤다. 열정적인 만학도인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지각, 조퇴, 결석이 한 번도 없었다. 2024년, 83세로 대학생이 된 그녀는 자신의 손녀가 다녔던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입학하였다. 김정자 여사의 다음 꿈은 미국에 있는 손주와 영어로 프리토킹을 하는 것으로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더 배우고 싶습니다.”

배움 앞에 당당하고 늘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모습에 숙연해진다. 83세 할머니도 매일 배우기 위해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2024년, 우리는 올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 또한 나는 신학도로서 어떤 배움에 직면해 있는가 고찰해본다. 2024년 예수중심제자신학원에서는 히브리어 과목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이는 영어, 중국어에 이어 히브리어까지 능통하길 바라시는 총회장 목사님의 가르침이다. 예수님이 쓰셨던 그 언어,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라는 새로운 배움 앞에 김정자 여사의 ‘더 배울 수 있다!’라는 투지가 활활 타오른다.

송현혜 생도

charisma0691@hanmail.net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공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잠언 21장 5절)

조급하고 무리해서
잘된 일은 없다
매사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라
-봉우